

한복의 톤 온 톤 배색에 대한 선호도 연구

- 한·미 여대생을 대상으로 -

강 경 자* · 팽 숙 경⁺
경상대학교 의류학과* · 진주교육대학교 강사⁺

A Study in the Preference of Tone on Tone Coloration in Traditional Korean Dress

- By Korean and American Students -

Kyung-Ja Kang* · Suk-Kyung Paeng⁺
Dept. Clothing & Textile, Gyeong Sang National University*
Instructor, Ch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04. 5. 3 투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compare the preference of tone on tone coloration of traditional Korean dress by Korean and American women college students. The respondents were asked to evaluate 48 stimuli of the traditional Korean skirt and jacket with different tone of color. It could be supposed that the different evaluation were caused by their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The results of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As to the red colors, Korean students preferred vivid and light tone coloration, and disliked dull and dark tone coloration, the same tone coloration, but American students preferred usually the same tone coloration and preferred coloration of 4 tone skirts and vivid jacket, dull and dark tone coloration.

As to the yellow colors, Korean students preferred dull and dark tone coloration and disliked the same tone coloration, American students preferred vivid and light tone coloration and disliked dull tone coloration as dull jacket and skirt.

As to the green colors, Korean students preferred dull and dark tone coloration and disliked the same tone coloration. American students preferred dull and dark tone coloration and preferred the same tone coloration.

Key words : tone on tone coloration(톤 온 톤배색), Korean dress(한복), preference(선호)

I. 서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거의 모두가 색채로 이루어져 있어 색채를 이해하지 못하고서 생활조형물의 미적인 조화를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간에 색채는 우리에게 무의식적으로 잠재되어 일상생활 속의 감정이나 행동, 태도 등 정서상태를 즉각적으로 변화시키는 감각적인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색채는 물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측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우리 생활의 중요한 속성이다.

의복에서의 색채는 가시적 표현력이 크고 가장 먼저 시선을 끄는 감각적인 요소로 착용자의 기호와 개성, 심미안뿐 아니라 문화적 배경을 표현한다¹⁾. 또한 소비자의 의복 선택 시에도 색채는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므로 패션 산업분야에서 좋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색채전개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의복에서의 색채는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가 거의 드물고 두 가지 이상의 색들이 배색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동일한 소재나 디자인으로 표현된 의복이라 할지라도 배색이 다르게 되면 주는 느낌 또한 달라지게 된다. 특히 우리 전통 한복의 경우 여러 디자인 요소 중 색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서양복보다 훨씬 더 배색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그 동안 패션계에서 다소 소외되었던 동양문화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동양풍의 디자인을 많이 발표하고 있어²⁾ 한복에 대한 관심과 인식 또한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여 한복 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고유의 전통 감각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국제적인 감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배색이 디자인의 초점이 되는 우리의 한복 산업이 국내외적으로 좋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기호에 부합하는 배색의 전개가 필수 조건이라 볼 수 있다.

기존의 의복색 선호도에 대한 연구는 서양복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한복에 대한 연구라 할지라도 한 문화권에 국한되어 이루어져 왔다. 더구나

나 상·하의 명도차에 의한 톤 온 톤 배색의 선호도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선행연구³⁾에서 치마·저고리색의 명도차이에 따른 조화감 즉 톤 온 톤 배색에 대한 조화감을 평가시킨 결과, 개인 및 문화간에 차이가 큰 배색과 적은 배색이 존재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렇다면 조화감에 대한 이들의 판단이 톤 온 톤 배색에 대한 선호도에 서로 일치된 경향을 보이는가를 밝혀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복배색 시에 치마·저고리의 색상을 동색으로 하고 톤에 변화를 준 톤 온 톤 배색에 대한 선호정도를 평가하게 함으로서 문화가 다른 한·미 여대생의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며 이들 결과를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배색전개를 위한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배색조화 이론

배색이란 두 가지 이상의 색을 의도적으로 배열하여 하나의 색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하며, 이들의 미적 관계는 색채조화의 문제로 통일 속에 변화가 있고 그 통일과 변화가 질서 있는 균형이 잡힐 때 비로소 조화를 이루게 된다.

실제로 하나의 색은 그 자체가 아름다운 색이라든가, 추한 색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둘 이상의 색으로 배색될 때 그 조화정도에 따라 보는 사람에게 쾌, 불쾌의 감정을 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색채조화의 기본이 되는 배색은 3가지 속성 즉 색상, 명도, 채도의 조작에 의해 조화되지만 일반적으로 색상에 중점을 두고서 조화를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색상조화는 크게 유사조화와 대비조화로 나눌 수 있는데, 유사조화는 유사한 색상끼리의 조화이며 서로 공통되는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조화되며 배색효과가 크다. 반면 대비조화는 서로 반대되는 느낌을 주거나 보색관계에 있는 색들을 대비시켜 얻어지는 조화로 서로 같은 정도의 보색인 두 색

을 나란히 놓을 때 두 색들은 상호특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대립관계가 심하게 느껴지지만 그러한 대립감이 조화의 한 원리가 되므로 색채대비는 배색의 기초가 된다⁴⁾. 톤에 따른 배색 유형으로는 동일한 톤의 다른 색상을 조화시킨 톤 인 톤 배색, 동일한 색으로 톤에 차이를 두어 배색한 톤 온 톤 배색, 그리고 색이나 톤을 현저하게 대비시킨 콘트라스트 배색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Jude에 의하면 색채조화는 기호의 문제로 정서반응은 사람에 따라 다르고, 또 같은 사람이라도 때에 따라 다르다⁵⁾고 하였다. 즉, 동일한 색상이라도 동양인과 서양인과는 아주 다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며, 같은 민족이라도 시대, 지방, 교육정도에 따라, 각 개인에 따라 다르게 된다. 개인의 경우도 장소, 상황, 계절, 옷의 형태, 질감, 개인의 피부색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⁶⁾.

강경자⁷⁾⁸⁾는 한미 여대생을 대상으로 톤 인 톤과 톤 온 톤 한복배색에 대한 조화감을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그 결과 조화-부조화라고 지각되는 배색이 구분되었고 이들 배색의 조화범위가 문화간에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특히 동색의 동일 톤 배색에 대한 조화감 평가에서 문화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양국 여대생 모두 톤 인 톤 배색보다 톤 온 톤 배색의 조화 범위가 넓게 나타나 색상보다 명도 차이가 조화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2. 색채기호

눈을 뜨고 활동하는 동안 잠시도 색채의 범주를 벗어나서 생활할 수 없는 인간은 색을 구별하면서부터 색을 좋아하게 된다. 여기서 좋아한다는 것은 기호의 문제로 좋으나 싫으나 하는 어느 한쪽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할 수 없는 것으로 어느 한 쪽을 향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색에 대한 기호는 개인의 연령이나, 성별, 직업, 교양, 유행 등에 의하여 쉬지 않고 변화되기 때문에 극히 주관적인 것으로 생각되기 쉬우나 알게 모르게 여러 요인들의 영향으로 각 개인의 다양한 취향을 포괄할 수 있는 어떤 집단 공통의 색채기호와 편견이 있다⁹⁾는 것이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하여

입증되었다.

Cheskin은 색채기호는 사회적·문화적·교육적·경제적인 함수에 기초를 둔다¹⁰⁾고 하였고 Birren은 지역, 민족, 유행, 연령, 교양 등의 요인에 의해 색채기호에 차이가 있다¹¹⁾고 하였다. Sargent는 색채기호란 각 개인의 경험에서 생성되며 극히 주관적인 취미 판단이나 한편 민족으로서 집단으로서의 객관적인 색채기호의 경향이 엇보인다¹²⁾고 기술하였으며 Berry & Martin¹³⁾은 집단적인 색채 선호현상은 그 사회의 민족적 문화규범이나 전통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데 일반적으로 국기에 들어간 색채는 선호색채라고 하였다. 김영자¹⁴⁾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의 색채기호차이는 지역적 특성과 민족적 특성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경희¹⁵⁾는 그의 연구에서 한국인은 Purple에 대한 기호율이 높는데 비하여 일본인은 Blue와 무채색에 대한 기호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민족적 특성에서 비롯된 색채감정의 차이라고 지적하였다.

성별에 따라서도 색채기호는 차이가 있어 남성보다 여성이 색채에 대하여 본능적으로 민감하여 화려하고 선명한 색을 선호하며 Eysenck에 의하면 색채가 어떠한 물체와도 관계없는 추상적인 것으로 볼 경우 순색은 성차가 존재하지 않지만 중성색일 때 비로소 성차가 나타난다고 하였다¹⁶⁾. 이금숙¹⁷⁾은 그의 연구에서 기호색의 경우 남자는 흰색, 녹색, 남색 순이며 여자는 녹색, 남색, 보라색 순이고 혐오색의 경우 남자는 회색, 빨강, 노랑, 자주 순이고, 여자는 회색, 파랑, 자주 순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기호색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색채기호가 연령과 밀접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로 Birren은 유아의 색채기호 순위는 노랑, 흰색, 빨강, 오렌지, 파랑, 녹색, 보라색이고 성인의 색채기호는 파랑, 빨강, 녹색, 흰색, 분홍, 보라, 오렌지, 노랑색 순이며 일반적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라 침착한 회색조의 색을 기호하며 색의 명도, 채도는 낮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남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낮은 명도, 낮은 채도의 색을, 여자는 연령이 어릴수록 높은 명도의 색을 좋아하고 연령이 많을수록 낮은 명도, 채도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¹⁸⁾. 최재춘¹⁹⁾은 연령이 낮은 여성은 채도가 높거나 난색계의

색을 선호한다고 하였고, 이선재²⁰⁾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대체로 난색계에서 한색계로 색채 선호가 변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정삼호²¹⁾는 20대는 연한분홍, 30, 40대는 초록, 50대는 하늘색, 밝은 보라색을 가장 선호하며, 스커트 색으로는 감청색을 가장 선호한다고 하였다. 박소희²²⁾는 20대는 관념적으로 Pastel계, Red계, Blue계, Black 순으로 난색계통을 더 선호하고, 혐오색은 Mauve, Khaki 순으로 어둡고 칙칙한 색을 싫어한다고 하였다.

색채 기호는 교육 수준과 소득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이 많을수록 섬세한 색채 계통을 좋아하고 색채기호는 훨씬 차분해진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저소득층은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색채나 채도가 높은 색을 선호한다²³⁾. 박소희²⁴⁾는 고졸은 Pastel계, Black, 전문대는 Blue계, Beige계, Black, 대재이상은 Red계, Pastel계, Blue계 순으로 선호하여 교육 수준별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색채기호는 성격이나 유행현상과도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여러 색채기호의 특성들은 단독으로 작용하기보다는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각 개인의 다양한 취향을 포괄하는 특정 집단의 공통된 색채기호를 형성하게 된다.

3. 의복 배색선호

의복에서의 색은 단색보다는 둘 이상의 색이 배색되어 사용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색의 종류와 위치에 따라 색면의 크기가 실제보다 작아 보이기도 하고 크게 보이기도 하며, 본래의 색과 다르게 보이므로 적절한 배색의 선택이 디자인의 분위기를 좌우한다²⁵⁾. 특히 한복은 서양복과는 달리 디자인의 변화가 적어 적절한 배색을 통한 조화가 소비자의 의복 선택 시 중요 결정 요인이 된다.

한복에서 여러 가지 색이 함께 나란히 배색이 되어 있는 경우는, 한가지 의복의 부분을 여러 색으로 조화시키는 것과 의복의 색을 각기 다른 여러 색으로 의복 종류끼리 조화를 이루는 경우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전자는 색동이라고 표현하고, 후자는 다양한 의복의 색채조화이다²⁶⁾. 금기숙²⁷⁾은 전통한복의 색채조화는 폐일과 밝은 원색, 어두운 다크 계열

의 배색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색조화의 특징은 맑고 밝은 색들과 맑고 짙은 색으로 배색된 명도대비에 있다고 하였다.

한편, Birren²⁸⁾은 색채의 배색효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내향적인 사람은 색채의 단조효과를 선호하며, 외향적인 사람은 색채의 대비효과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Jude²⁹⁾는 청년기 여성들은 유사배색을 가장 선호하고, 다음으로 단색을 좋아한다고 하였다. 대비 배색에서는 등간격의 삼각대비배색을 선호하고 보색대비배색은 좋아하는 사람이 없거나 아주 낮아 근접보색조화가 보색조화보다 선호도가 조금 더 높다고 하였다. 이선재³⁰⁾는 성인여성과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인 여성은 난색과 보색배색을 선호하고 여대생은 한색계통과 동색배색을 선호하여 연령에 따라 한색계와 난색계의 색채선호가 다르다고 하였다. 김소영³¹⁾은 지역적으로 부산과 고연령층, 기혼여성들은 동일배색의 한복을 선호하고, 서울과 연령이 낮은 층이나 직장여성, 학생, 미혼여성들은 강한 대비를 이루는 한복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반면, 김진아³²⁾는 모든 연령층에서 상하동색보다는 상하이색 배색의 한복을 더 선호하며 젊은 연령층은 현대적인 배색을, 고연령층은 전통적인 배색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한복자극물과 이에 대한 배색선호도를 측정하는 의미미분척도문항을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1) 자극물

자극물은 치마·저고리의 전통한복을 착용한 여자의 모습으로 얼굴과 헤어스타일은 통제하였다 <그림 1>.

한복의 구조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구성방법으로 저고리의 깃과 고름색은 치마색과 동일하게 하고



<그림 1> 한복 자극물

저고리 색은 다르게 구성 하였으며 자수나 문양, 염 색, 끝동 등은 없는 것으로 통제하였다.

본 연구에 선정된 치마·저고리의 색상은 빨강, 노랑, 초록이며 각 색상의 톤은 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의 4가지 톤이 되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사용된 색상과 톤은 <표 1>과 같다.

<표 1> 자극물에 사용된 색상과 톤

색상	빨강(Red)	노랑(Yellow)	초록(Green)
비비드(vivid)	5R 4/14	5Y 8.5/14	5G 5/10
라이트(light)	5R 8/6	5Y 8.5/6	5G 8/4
덜(dull)	5R 5/6	5Y 7/6	5G 6/4
다크(dark)	5R 2/6	5Y 3/4	5G 2/4

자극물의 제작은 한복착용자의 그림을 CAD system (4D-BOX 6800 Zun system)에 scanning하여 입력한 다음 선정된 색상이 치마·저고리에 각각 배색되도록 조작한 후 프린트하였다.

최종 자극물은 12가지 저고리색과 무채색을 포함한 28가지 치마색을 조합하여 만든 총 336개의 실험 배색으로 선정·조사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저고리색을 기준으로 빨강, 노랑, 초록의 3가지 색상을 각각 치마·저고리에 상·하 동색이 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조작된 색상을 채도는 중간으로 통제하고 명도에 변화를 주어 치마·저고리가 각각 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의 4가지 톤이 되도록 한 후 이들 톤을 상·하의에 차이가 나도록 조합하였다. 즉 전체 자극물 336개 중 동색계열이면서 상·하의의 명도가 차이 나도록 조합된 톤 온 톤 배색 총48개의 자극물만 본 연구의 평가에 사용되었다. 이때 배경색은 흰색으로 통제하였다.

2) 자극물의 평가

자극물에 대한 평가는 한국여대생의 경우 피험자

내 설계로 한 피험자가 모든 자극물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한 피험자가 동시에 모든 자극물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한번에 16-17장의 자극물을 제시하고 20회에 걸쳐 시간차이를 두고 평가하도록 하였다. 미국여대생의 경우는 총 336개의 자극물을 16-17장씩 20개의 실험조합으로 구성하고 실험조합별로 10명씩 피험자간 설계에 의해 무선배치 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각 피험자는 1개의 무선조합에 배치되어 16-17장의 자극물을 평가하였으므로 피험자내 설계와 피험자간 설계가 병행되어 이루어졌다. 이 때 하나의 실험조합에 포함된 자극물 16-17장은 색상과 톤에 의한 조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순서효과를 없애기 위해 피험자에게 제시되는 자극물의 순서를 달리하였다.

3) 선호도 척도

본 연구에서는 한복배색에 대한 선호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내가 좋아하는 - 내가 좋아하지 않는'의 형용사쌍을 사용하여 7단계 의미미분척도를 제시하였다. 왼쪽 극단의 긍정적인 형용사에 7점을 주고 오른쪽 극단에 배치된 부정적 형용사에 1점을 부여하여 자료를 수량화하였다. 자극물에 대한 선호도 척도의 신뢰도를 밝히기 위해 예비조사시와 동일한 자극물을 평가하게 하였다. 검사-재검사 방법에 의한 신뢰도 계수는 .745로 나타났다.

2. 자료수집

본 연구의 평가자는 한국 여대생과 미국 여대생으로 하였다. 한국의 경우 경상대학교 의류학과에 재학 중인 83명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1999. 10월 초에서 12월 초 사이에 조사하였다. 미국의 경우는 위스콘신 주립대학의 생활과학대학(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Human Ecology)에서 consumer science와 environment textile and design을 전공하는 200명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1998. 11월에서 1999.1월 사이에 조사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A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세부적인 통계분석방법으로는 기술통계와 t-검증, 분산분석과 사후 분석으로 L.S.D(최소유의차 검증)을 하였으며 그 유의수준은 .05로 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한·미 여대생을 대상으로 조합된 48개의 톤 온 톤 배색에 대한 선호도를 평가·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빨강 톤 온 톤배색에 대한 선호도 비교

4가지 톤의 빨강색 치마·저고리를 톤이 서로 다르도록 조합하여 선호도를 평가한 결과를 <표 2>와 <그림 2>에 나타내었다.

1) 치마색의 톤 변화에 따른 한·미 여대생의 선호도 비교

저고리색을 각 톤별로 통제시킨 상태에서 치마의 명도변화에 따른 선호도를 살펴보면 먼저 비비드 톤의 빨강저고리에 4가지 톤의 치마색을 각각 배색할 경우 한국 여대생은 치마의 명도변화에 따라 선호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비비드 톤 저고리와 라이트, 다크, 덜, 비비드 톤 치마와의 배색순으로 선호하였고 두 문화에서 큰 차이를 보인 배색은 빨강 비비드 저고리와 동일 톤인 비비드 치마, 그리고 덜 톤 치마

와의 배색으로 한국 여대생은 이들 배색을 매우 선호하지 않으나 미국 여대생은 선호하여 한국여대생과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라이트 빨강 저고리와 4가지 톤의 빨강 치마를 각각 배색할 경우 양국 여대생 모두 치마의 명도 변화에 따라 선호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라이트 톤 저고리와 비비드 톤이나 다크 톤 치마와의 배색은 양국 여대생 모두 비슷하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화간에 큰 차이 없이 공통된 반응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한국 여대생은 라이트 톤 저고리와 동일 톤인 라이트 치마와의 배색을 미국 여대생보다 선호하지 않는 반면 미국 여대생은 덜 톤 치마와의 배색을 한국 여대생보다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다소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덜 톤의 빨강 저고리와 4가지 톤의 빨강 치마를 각각 배색할 경우 한국 여대생은 라이트, 비비드, 다크, 덜 톤 치마와의 배색순으로 선호하여 덜 톤의 치마·저고리 배색을 가장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여대생은 다크, 비비드, 덜, 라이트 톤 치마와의 배색순으로 선호하여 라이트 톤 치마와의 배색을 가장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덜 톤이나 다크 톤 치마와의 배색에서 문화간에 차이를 보였다.

다크 톤의 빨강 저고리와 4가지 톤의 빨강 치마를 각각 배색할 경우 라이트 톤 치마와의 배색에서는 양국 여대생이 유사한 선호 경향을 보인 반면 비비드 톤이나 덜 톤, 다크 톤 치마와의 배색에서는 문화간에 차이를 보였다. 즉 다크 톤 저고리와 덜 톤이나 다크 톤 치마와의 배색을 한국 여대생은 선호하지 않는 반면 미국 여대생은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빨강 톤 온 톤 배색에 대한 한·미 여대생의 선호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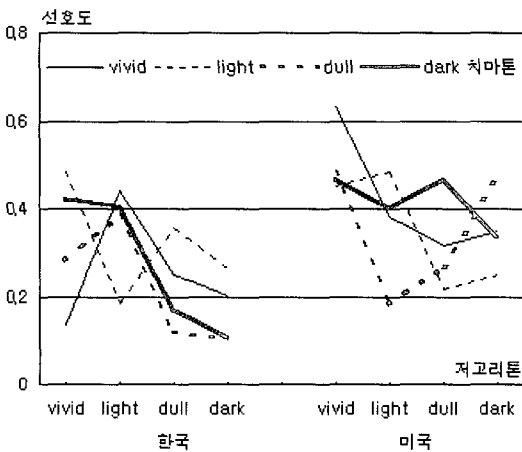
치마 \ 저고리	비비드(vivid)			라이트(light)			덜(dull)			다크(dark)			F 값		
	한국	미국	t값	한국	미국	t값	한국	미국	t값	한국	미국	t값	한국	미국	
빨강 (red)	vivid	135cC	633aA	.0026**	439aA	383abAB	.5617	251bB	317abB	.4334	203bBC	350aB	.0398*	.0001***	.0984
	light	486aA	450aAB	.7144	182bD	.483aA	.0003***	.357aB	.217bB	.1268	264aC	250aCB	.8588	.0001***	.0266*
	dull	283bB	483aA	.0239*	.386aA	.183bB	.0200*	.118cC	.267abAB	.0217*	.101cC	.467aAB	.0285*	.0001***	.1089
	dark	421aA	467aA	.6355	.402aA	.400abA	.9846	.169cB	.467aA	.0374*	.107cB	.333aA	.0915	.0001***	.7906
	F값	.0001***	.5992		.0001***	.1021		.0001***	.2084		.0001***	.5277			

L.S.D 검정결과 $p < .05$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치마톤은 a>b>c, 저고리톤은 A>B>C로 표시

* $p < .05$ ** $p < .01$ *** $p < .001$

2) 저고리색의 톤 변화에 따른 한·미 여대생의 선호도 비교

치마색을 각 톤별로 통제시킨 상태에서 저고리색의 명도변화에 따른 배색 선호도를 살펴보면 먼저 비비드 빨강치마를 4가지 톤의 저고리와 각각 배색할 경우 한국 여대생은 비비드 톤 치마와 라이트 톤 저고리와의 배색을 가장 선호한 반면 미국 여대생은 동일한 톤인 비비드 톤의 치마·저고리를 가장 선호하여 양 문화간에 차이를 보였다. 이는 우리 한복배색에서 볼 수 있는 빨강 치마와 분홍 저고리의 배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치마·저고리의 톤이 바뀐 분홍치마·빨강저고리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여 이들 톤의 조합은 색상면적에 관계없이 선호되는 배색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 빨강 톤 온 톤 배색의 선호도 비교

라이트 톤의 빨강치마를 4가지 톤의 저고리와 각각 배색할 경우 한국 여대생은 라이트 톤 치마와 비비드 저고리를 가장 선호하며 치마와 같은 톤인 라이트 톤 저고리와의 배색은 가장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 여대생은 라이트, 비비드, 다크, 덜 톤 치마와의 배색순으로 선호하여 동일 톤인 라이트 톤의 치마·저고리 배색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합감 지각에서와 마찬가지로 양국 여대생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덜 톤의 빨강치마를 4가지 톤의 저고리와 각각 배

색할 경우 한국 여대생은 라이트 톤 저고리와의 배색을 가장 선호하고 덜, 다크 톤 저고리와의 배색을 매우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상하 톤 조합이 바뀐 덜 톤 저고리와 라이트 톤 치마와의 배색 또한 선호정도가 비슷하게 나타나 한국 여대생은 빨강 덜 톤과 라이트 톤의 배색을 색상 면적에 상관없이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여대생은 비비드, 다크, 덜, 라이트 톤 저고리와의 배색순으로 선호하여 라이트 톤 저고리와의 배색을 가장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여대생과 상반된 반응을 보였으며 상·하 톤이 바뀐 덜 톤과 라이트 톤의 배색에서도 양국 여대생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즉 한국 여대생의 경우 짙은 톤과 연한 톤의 조합은 상·하 배색이 바뀌어도 색상면적에 상관없이 선호한 반면 미국여대생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크 톤의 빨강 치마를 4가지 톤의 저고리와 각각 배색할 경우 한국여대생은 비비드,라이트 톤과의 배색을 선호하였으나 덜이나 다크 톤 저고리와의 배색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미국 여대생들은 덜이나 다크 톤 저고리와의 배색을 한국여대생보다 선호하여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2. 노랑 톤 온 톤배색에 대한 선호도 비교

4가지 톤의 노랑색 치마·저고리를 톤이 서로 다르도록 조합하여 선호도를 평가한 결과를 <표 3>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1) 치마색의 톤 변화에 따른 한·미 여대생의 선호도 비교

저고리 색을 각 톤별로 통제시킨 상태에서 치마의 명도변화에 따른 선호도를 살펴보면 먼저 비비드 톤의 노랑저고리와 4 가지 톤의 치마색을 각각 배색할 경우 한국 여대생은 동일 톤인 비비드 치마와의 배색을, 미국 여대생은 비비드나 다크 톤 치마와의 배색을 가장 선호하지 않아 양국 여대생 모두 동일 톤인 비비드 노랑치마·저고리를 선호하지 않는 공통점을 보인 반면 한국 여대생은 다크 톤 치마와의 배색을 미국 여대생은 라이트 톤 치마와의 배색을 가

<표 3> 노랑 툰 은 툰 배색에 대한 한·미 여대생의 선호도 비교

치마	저고리	비비드(vivid)			라이트(light)			덜(dull)			다크(dark)			F 값	
		한국	미국	t값	한국	미국	t값	한국	미국	t값	한국	미국	t값	한국	미국
노랑 (yellow)	vivid	193cB	167bB	.7336	296bA	417aA	1834	278bA	117abB	.0570	278bA	250aAB	7393	.0342*	.0692
	light	290bA	400aA	.2303	191cB	367aAB	.0222*	310bA	250aAB	.4692	326bA	167aB	0463*	.0014**	.1700
	dull	295bB	233abB	.4432	345bAB	250aA	2281	165cC	050bB	.0018**	407aA	267aA	1358	.0001***	1023
	dark	455aA	167bA	.0006***	478aA	233aA	.0094**	438aA	133abA	.0001***	151cB	333aA	0233*	.0001***	.2699
	F값	.0001***	.1025		.0001***	.3855		.0001***	.0600		.0001***	.6169			

L.S.D 검정결과 $p < .05$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치마톤은 a>b>c, 저고리톤은 A>B>C로 표시
* $p < .05$ ** $p < .01$ *** $p < .001$

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라이트 툰의 노랑 저고리와 4가지 툰의 치마색을 각각 배색할 경우 한국 여대생은 다크, 덜, 비비드, 라이트 치마와의 배색순으로 선호하여 동일 툰인 라이트 노랑 저고리·치마를 가장 선호하지 않으며 다크 툰 치마와의 배색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 여대생은 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 툰 치마와의 배색순으로 선호하여 다크 툰 치마와의 배색을 가장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짙은색 치마와 연한색 저고리의 배색에 대해 한국 여대생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덜 툰의 노랑저고리와 4가지 툰의 치마색을 각각 배색할 경우 한국 여대생은 치마의 명도 변화에 따라 선호도에 차이를 보였고 미국 여대생은 각 배색에 대해 매우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한국 여대생은 다크 툰 치마와의 배색을 가장 선호하는데 반해 미국 여대생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문화간에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저고리와 동일 툰인 덜 툰 치마와의 배색은 양국 여대생 모두 가장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특히 미국 여대생은 덜 툰의 노랑 치마·저고리를 매우 싫어하여 대체로 동일 툰 배색을 선호하는 미국 여대생의 일반적인 선호경향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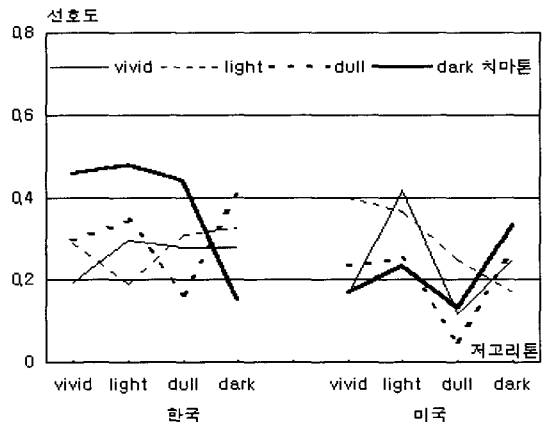
다크 툰의 노랑저고리와 4가지 툰의 치마색을 각각 배색할 경우 한국 여대생은 치마의 툰 변화에 따라 선호정도에 차이를 보였다. 한국 여대생은 덜 툰 치마와의 배색을 가장 선호하고 동일 툰 배색인 다크 툰 치마와의 배색을 가장 선호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 여대생은 다크 툰 치마·저고리 배색을 가장 선호하고 라이트 툰 치마와의 배색을 가장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 여대생과는 다소 상

반된 반응을 보였다.

2) 저고리색의 툰 변화에 따른 한·미 여대생의 선호도 비교

치마색을 각 툰별로 통제시킨 상태에서 저고리색의 명도변화에 따른 배색 선호도를 살펴보면 먼저 비비드 노랑치마를 4가지 툰의 저고리와 각각 배색할 경우 한국 여대생은 대체로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특히 동일 툰인 비비드 저고리와의 배색을 매우 선호하지 않아 미국 여대생과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미국 여대생은 비비드 치마와 라이트 저고리의 배색을 가장 선호하며 덜 툰과의 배색을 가장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노랑 툰 은 툰 배색의 선호도 비교

라이트 툰의 노랑 치마를 4가지 툰의 저고리와 각각 배색할 경우 한·미 여대생은 대체로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특히 한국 여대생은 동일 툰 배색인 라이트 툰

저고리와의 배색을 미국 여대생보다 선호하지 않는 반면 라이트 치마와 다크 톤 저고리와의 배색은 보다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화간에 차이를 보였다. 미국 여대생의 경우 비비드 저고리와의 배색을 가장 선호하였는데 이들 상하 톤 조합을 거꾸로 한 비비드 톤 치마와 라이트 톤 저고리와의 배색 또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랑 비비드 톤과 라이트 톤의 배색은 색상 면적에 상관없이 선호되는 배색임을 알 수 있다.

덜 톤의 노랑치마를 4가지 톤의 저고리와 각각 배색할 경우 한국 여대생은 다크, 라이트, 비비드, 덜 톤 저고리와의 배색순으로 선호하여 동일 톤인 덜 톤 저고리와의 배색을 가장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여대생도 같은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 여대생보다 매우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다크 톤의 노랑 치마를 4가지 톤의 저고리와 각각 배색할 경우 한국 여대생은 라이트, 비비드, 덜 톤 저고리와의 배색은 매우 선호하나 동일 톤인 다크 톤 저고리와의 배색은 가장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상·하 톤이 바뀐 덜 톤 치마와 다크 톤 저고리와의 배색 또한 선호하여 노랑 덜 톤과 다크 톤의 배색은 한국 여대생이 상하 색상의 면적에 상관없이 선호하는 배색임을 알 수 있다. 미국 여대생은 다크, 라이트, 비비드, 덜 톤 저고리와의 배색순으로 선호하여 다크 톤 저고리와의 배색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 여대생과 다소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3. 초록 톤 온 톤 배색에 대한 선호도 비교

4가지 톤의 초록색 치마, 저고리를 서로 톤이 다르도록 조합하여 선호도를 평가한 결과를 <표 4>와 <그림 4>에 나타내었다.

1) 치마색의 톤 변화에 따른 한·미 여대생의 선호도 비교

저고리 색을 각 톤별로 통제시킨 상태에서 치마의 명도변화에 따른 선호도를 살펴보면 먼저 비비드 톤의 초록 저고리에 4가지 톤의 치마색을 배색할 경우 한국 여대생은 다크, 덜, 라이트, 비비드 치마와의 배색순으로 선호하였다. 그리고 비비드 톤 초록 저고리와 비비드나 라이트 톤 치마를 배색한 경우 양국 간에 차이를 보였다. 즉, 한국 여대생은 초록 비비드 저고리와 다크 톤 치마와의 배색을 가장 선호하며 동일 톤인 비비드 톤 치마와의 배색을 가장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 여대생은 초록 비비드 저고리와 라이트 치마와의 배색을 가장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서 같은 비비드 저고리와 라이트 치마의 조합이라도 빨강이나 노랑색의 경우 선호정도가 높은 것으로 볼 때 톤의 조합만이 아닌 색상 또한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라이트 톤의 초록 저고리와 4가지 톤의 치마색을 각각 배색할 경우 한국 여대생은 다크, 덜, 비비드, 라이트 톤 치마와의 배색순으로 선호하여 동일 톤인 라이트 초록 치마와의 배색을 가장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미국 여대생은 동일 톤인 라이트 톤 치마·저고리와의 배색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양 문화간에 차이를 보였다.

덜 톤의 초록 저고리를 4가지 톤의 치마색과 각각 배색할 경우 한국 여대생은 다크, 라이트, 비비드, 덜 톤 치마와의 배색순으로 선호하여 동일 톤 배색인 덜 톤 치마와의 배색을 가장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미국 여대생은 덜 톤 치마와의 배색을 가장 선호하여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표 4> 초록 톤 온 톤 배색에 대한 한·미 여대생의 선호도 비교

치마 \ 저고리	비비드(vivid)			라이트(light)			덜(dull)			다크(dark)			F 값		
	한국	미국	t값	한국	미국	t값	한국	미국	t값	한국	미국	t값	한국	미국	
초록 (green)	vivid	163cC	350abA	.0077**	400bA	367aA	7415	292bB	367aA	3900	311bB	333bA	8023	.0001***	.9925
	light	361bA	167bB	.0406*	213cB	500aA	.0007***	328bA	433aAB	2293	359abA	367bAB	9420	.0010***	1.003
	dull	394abA	467aA	.4461	463bA	467aA	.9673	165cB	567aA	.0029**	502aA	650aA	7305	.0001***	5.221
	dark	456aB	367abB	.3536	550aA	383aAB	1030	514aAB	550aAB	7154	178cC	667aA	.0000***	.0001***	1.207
	F값	.0001***	.1107		.0001***	.7601		.0001***	.3887		.0001***	.06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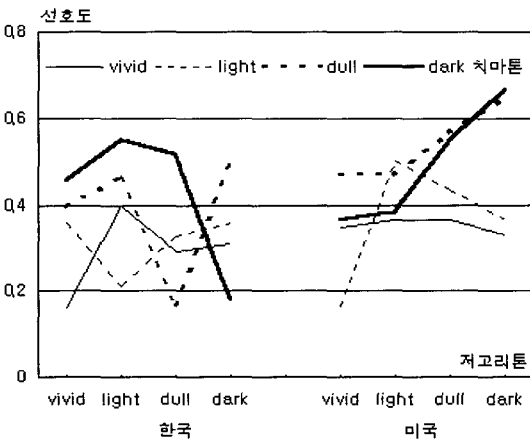
L.S.D 검정결과 $p < .05$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치마톤은 a>b>c, 저고리톤은 A>B>C로 표시

* $p < .05$ ** $p < .01$ *** $p < .001$

다크 톤의 초록 저고리를 4가지 톤의 치마색과 각각 배색할 경우 한국 여대생은 덜, 라이트, 비비드, 다크 톤 치마와의 배색순으로 선호하여 동일 톤인 다크 톤과의 배색을 가장 선호하지 않았다. 반면에 미국 여대생은 다크 톤과의 배색을 가장 선호하여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다크 톤 저고리와 덜, 라이트, 비비드 톤 치마와의 배색에서는 양국 여대생 모두 유사한 선호 경향을 보였다.

2) 저고리색의 톤 변화에 따른 한·미 여대생의 선호도 비교

치마색을 각 톤별로 통제시킨 상태에서 저고리색의 명도변화에 따른 배색 선호도를 살펴보면 먼저 비비드 초록 치마와 4가지 톤의 저고리색을 각각 배색할 경우 한국 여대생은 저고리의 명도변화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라이트, 다크, 덜, 비비드 톤 저고리와의 배색순으로 선호하여 동일 톤인 비비드 톤 초록저고리와의 배색을 가장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여대생은 라이트·덜, 비비드, 다크 톤 저고리와의 배색순으로 선호하였으나 저고리의 명도변화에 따라 선호정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양 문화간에 다소 차이를 보였다.



<그림 4> 초록 톤 온 톤 배색의 선호도 비교

라이트 톤 초록 치마와 4가지 톤의 저고리색을 각각 배색할 경우 한국 여대생은 비비드 톤 저고리와

의 배색을 가장 선호하고 동일 톤인 라이트 톤 저고리와의 배색을 가장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 여대생은 동일 톤인 라이트 톤 저고리와 배색을 가장 선호하고 비비드 톤 저고리와의 배색을 가장 선호하지 않아 한국 여대생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덜이나 다크 톤 초록 저고리와의 배색은 양국 여대생 모두 유사한 선호 경향을 보였다.

덜 톤 초록 치마와 4가지 톤의 저고리색을 각각 배색할 경우 한국 여대생은 다크, 라이트, 비비드, 덜 톤 저고리와의 배색순으로, 미국 여대생은 다크, 덜, 라이트·비비드 톤의 배색순으로 선호하였다. 여기서 동일 톤인 덜 톤 치마·저고리를 한국 여대생은 가장 선호하지 않은 반면에 미국 여대생은 매우 선호하여 양 문화간에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다크 톤 저고리와의 배색은 양국 여대생 모두 가장 선호하며 라이트와 비비드 톤 저고리와의 배색 또한 유사한 경향으로 선호하여 문화간의 차이 없이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또한 상하 톤이 바뀐 초록 다크 톤 치마와 덜 톤 저고리의 배색을 양국 여대생 모두 색상면적에 상관없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초록 덜 톤과 다크 톤의 배색이 문화간의 차이 없이 공통적으로 선호되는 배색임을 알 수 있다.

다크 톤 초록 치마와 4가지 톤의 저고리 색을 각각 배색할 경우 동일 톤인 다크 톤 저고리와의 배색 선호도에서 양국 여대생이 큰 차이를 보였다. 즉 한국 여대생은 다크 톤 초록 저고리와의 배색을 가장 선호하지 않은 반면 미국 여대생은 가장 선호하여 양국 여대생은 크게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이상의 톤 온 톤 반복배색에 대한 선호도 평가 결과를 선행된 강경자³³⁾의 조화감 평가와 비교해 보면 부분적으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유사한 경향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각 톤별로 조화롭다고 평가한 배색순과 선호도 평가 배색순이 거의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단 그 평가 값은 조화감에 비해 선호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조화감이 선호도보다는 보다 더 객관적인 기준에서 평가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양 문화간을 살펴보면 한국여대생은 조화감과 선호도 평가 순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미국 여대생은 어떤 배색들에 대해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특히 미국 여대생이 상반된 반응을 보인 배색은 빨강 덜 톤의 동일 톤 한복배색과 노랑 덜 톤 저고리와 라이트 톤 치마와의 배색으로 미국 여대생은 이들 배색을 매우 조화롭다고 평가하였으나 선호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한국 여대생은 일반적으로 조화롭다고 평가되는 배색에 대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배색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미국 여대생은 한국 여대생보다 이러한 경향이 낮아 어떤 배색을 선호하는데 있어 주관적인 성향이 한국 여대생 보다 더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한미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복 배색에서 빨강, 노랑, 초록을 각각 상하 동색으로 한 후 채도는 중채도로 통제하고 명도만 변화를 주어 상·하의 톤을 다르게 조합한 48개의 톤 온 톤 배색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한·미 문화간의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빨강 톤 온 톤 배색을 살펴보면 한국 여대생은 대체로 치마·저고리의 톤이 같은 동색 배색을 매우 선호하지 않으며 동일 톤 배색이 되는 라이트 톤을 제외한 3가지 톤의 치마와 저고리 모두 라이트 톤과의 배색을 매우 선호하였다. 특히 비비드와 라이트 톤 배색은 상하조합에 상관없이 가장 선호하는 배색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덜과 다크 톤 배색은 상하조합에 상관없이 매우 선호하지 않는 배색으로 나타났다. 미국 여대생은 치마·저고리의 톤이 같은 동색 배색을 대체로 선호하는 편이며 4가지 톤의 치마 모두 비비드 저고리와의 배색을 매우 선호하였다. 또한 덜 톤과 다크 톤의 배색은 상하 조합에 상관없이 선호하지만 라이트 톤과 덜 톤의 배색은 상하 조합에 상관없이 선호하지 않는 배색으로 나타나 한국 여대생과는 상반된 선호 경향을 보였다.

노랑 톤 온 톤 배색을 살펴보면 한국 여대생은 치마·저고리의 톤이 같은 동색 배색을 매우 선호하지

않고 동일 톤 배색이 되는 다크 톤을 제외한 3가지 톤의 저고리 모두 다크 치마와의 배색을 가장 선호하였다. 또한 덜과 다크 톤은 치마·저고리에 바꾸어 조합하여도 선호하는 배색으로 나타났다. 미국 여대생은 비비드와 라이트 톤 배색을 치마·저고리 즉 상하조합에 상관없이 선호하며 덜 톤 저고리의 경우 어떤 톤의 치마와 조합하여도 선호정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특히 동색 배색이 되는 덜 톤 치마·저고리의 배색을 매우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었던 동색 배색을 선호하는 미국 여대생의 일반적인 선호경향과 상반된 반응이다.

초록 톤 온 톤 배색을 살펴보면 한국 여대생은 치마·저고리의 톤이 같은 동색 배색을 매우 선호하지 않고 동색 배색이 되는 다크 톤을 제외한 3가지 톤의 저고리 모두 다크 치마와의 배색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덜과 다크 톤의 배색을 치마·저고리의 상하조합에 상관없이 선호하여 대체로 노랑 톤 온 톤 배색에서와 유사한 선호경향을 보였다. 미국 여대생은 치마·저고리의 톤이 같은 동색 배색을 선호하여 한국 여대생과 상반된 선호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덜과 다크 톤의 배색을 치마·저고리에 바꾸어 조합하여도 선호하는 배색으로 나타나 한국 여대생과 공통된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한복의 톤 온 톤 배색 선호도에 대한 한미 문화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한국 여대생은 빨강, 노랑, 초록의 3가지 색상 모두 치마와 저고리의 명도 변화에 따라 선호정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미국 여대생은 대체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한국 여대생의 경우 치마·저고리의 명도 변화가 선호정도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미국 여대생의 경우는 한국 여대생에 비해 명도 변화가 선호정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동일 톤 배색에서 양국 간에 큰 차이가 있었는데 한국 여대생은 동일 톤 배색을 매우 선호하지 않는 반면 미국 여대생은 대체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여대생의 경우 전통 한복의 배색이 대부분 이색배색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색배색을 동색 배색보다 선호하며 미국 여대생의 경우는 그들에게 익숙한 동색배색의 suit차림의 영향으로 상하 동일 톤의 동색 배색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로 보인다. 또한, 색상에 대한 선호도에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대체로 빨강과 초록 톤 온 톤 배색은 한국 여대생보다 미국 여대생의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노랑 톤 온 톤 배색에 대한 선호도는 한국 여대생이 높게 나타나 문화 간에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복 배색에서 치마·저고리의 색상은 동일하게 하고 채도는 중간으로 통제하여 톤에 변화를 준 온 톤 배색에 대한 한미 양국의 선호도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복 배색에 대한 선호도는 본 연구 외의 여러 배색유형과 배색 면적비, 질감과 평가자의 성별이나 연령층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이라 예측되므로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평가자의 범위와 평가 장소가 한정되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확대 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이은영 (1989). 임산부의 의복디자인 선호도와 육구와의 상관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2.
- 2) 김희정·이경희 (2000). 동양적 복식디자인의 특성과 이미지 연구(제1보). 한국의류학회지, 24(1), p. 25.
- 3) 강경자 (2002). 한복 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 여대생의 지각 반응 연구(제2보)- 톤 온 톤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6(3·4), pp. 443-453.
- 4) 박은주 (1999). 색채조형의 기초. 미진사.
- 5) 박화순 (1992). 의복의 배색유형에 따른 지각반응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가정생활연구소, 8호, pp. 79-90.
- 6) 유송옥 (1996). 복식의장학. 수학사, p. 210.
- 7) 강경자 (2001). 한복 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 여대생의 지각 반응 연구(제1보)- 톤 인 톤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5(4), pp. 731-742.
- 8) 강경자, 앞의 책, pp. 443-453.
- 9) 정지현 (1983). 색채기호와 색연상에 관한 조사연구. 성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 26.
- 10) 大智浩譯 (1962). 役たつ色彩. 東京: 白陽社, p. 108.
- 11) 김영철 (1979). 색채응용 및 기호심리에 관한 조사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은소영 (1996). 20대 남녀의 의복 색채선호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8.
- 13) Susan Berry·Judy Martin, 김미자 역. (1997). Designing with Colour. 서울: 예경, p. 8.

- 14) 김영자 (1987). 한국복식미의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 1.
- 15) 이경희 (1997). 전통색에 대한 한·일 대학생의 색채기호의 비교. 한국색채학회, 제9호, pp. 163-173.
- 16) 野村順 (1966). 商品色彩論. 東京: 千倉書房, pp. 133-134.
- 17) 이금숙 (1991). 청년기의 의복색 기호와 색채 이미지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8) 김용훈 편저 (1987). MERCHANDISING을 위한 색채상품 개발론. 청우, p. 17.
- 19) 최재춘 (1982). 여학생의 의복 선호도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0.
- 20) 이선재 (1987). 한국여성의 의복선택 요인과 가치관과의 상관성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1(1), pp. 29-42.
- 21) 정삼호 (1989). 성인 여성의 체형과 연령에 따른 의복디자인 선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2) 박소희 (1996). 20대 남녀의 의복 색채 선호도에 관한 연구-대구시내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3) 김용훈 편저, 앞의 책, p. 17.
- 24) 박소희, 앞의 책.
- 25) 석재은 (1993). 성인여성의 자아개념과 의복색채 선호도와와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2.
- 26) 노동부. 복식미학. 산업인력관리공단, p. 146.
- 27) 금기숙 (1992). 한국 전통 복식미의 현대적 활용. 복식, 19, pp. 29-40.
- 28) F. Birren (1995). *New Horizons in color*. N.Y.: R.P.C, p. 139.
- 29) J. Williams, J. Arbaugh, M. Rucker (1980). Clothing color preferences of adolescent femal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9(1), pp. 57-63.
- 30) 이선재 (1987). 한국여성의 가치관과 의복디자인 선호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1(1).
- 31) 김소영 (1990). 성인여성의 한복색채기호도와 성격특성과의 상관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2) 김진아 (1994). 여자 한복의 문양과 배색 선호도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3) 강경자, 앞의 책, pp. 443-453.